

[사회]

광주·전남 4년제 대학 등록률

지역	대학	모집	등록	등록률
광주	광주교대	479	478	99.8
	전남대	3,879	3,844	99.1
	광신대	130	86	66.2
	광주대	1,950	1,820	93.3
	광주여대	1,011	972	96.1
	남부대	679	625	92.0
	조선대	4,847	4,847	100.0
	호남대	2,145	1,952	91.0
	호남신학대	170	162	95.3
	소 계	15,290	14,786	96.7
전남	목포대	1,794	1,791	99.8
	목포해양대	618	616	99.7
	순천대	1,888	1,879	99.5
	전남대(여수)	974	913	93.7
	광주가톨릭대	45	31	68.9
	대불대	1,502	975	64.9
	동신대	2,515	1,939	77.1
	명신대	339	242	71.4
	목포가톨릭대	130	123	94.6
	조선신학대	50	6	12.0
연암대	1,180	753	63.8	
한려대	645	230	34.1	
소 계	11,680	9,488	81.2	
계	26,970	24,274	90	

광주·전남 4년제 대학 올해 등록률 평균 90%

전문대는 91%

2007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광주·전남 20개 4년제 대학 중 8개 대학이 모집정원의 90%를 채우지 못했으며, 특히 이 중 2개 대학은 정원의 절반조차 모집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내 17개 전문대학의 경우 5개 대학이 모집정원의 90%를 채우지 못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주호 의원(한나라당)이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제출받아 4일 공개한 '2007학년도 대학별 등록률 현황'에 따르면 4년제 대학의 경우 광주지역 9개 대학이 평균 96.7%의 등록률을 기록, 전국 평균인 97.1%에 다소 못 미쳤다. 전남 11개 대학의 등록률은 81.2%로 전국 평균보다 턱없이 모자랐고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낮았다.

광주의 광신대(66.2%), 전남의 영산신학대(12%)·한려대(34.1%)·초당대(63.8%)·대불대(64.9%)·광주가톨릭대(68.9%)·명신대(71.4%)·동신대(77.1%) 등 8개 대학의 등록률은 50% 미만이었다.

전문대학의 경우 광주지역 7개 대학이 평균 93.1%의 등록률을 기록, 전국 평균인 92.2%를 웃돌았다. 그러나 전남 10개 전문대학의 평균 등록률은 89.7%에 그쳤다.

전남지역 전문대학의 19개 모집단위는 신입생을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전국 148개 전문대학 중 46개 대학의 등록률이 90%에 미달했고, 3개 대학은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주호 의원은 "모집인원 감축 등 대학들의 구조조정 노력으로 등록률이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미충원 인원이 많다"며 "지속적인 정보공개 등을 통해 대학 특성화, 다양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지역 대학의 3개 모집단위, 전남의 49개 모집단위는 신입생을 절반도 모으지 못했다.

전국적으로 모든 국공립대학이 모집정원의 90% 이상을 채웠지만 173개 사립대학 중 27개 대학의 등록률이 90%에 못 미쳤고 6개 대학은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전체 5천764개 모집단위 중 141개(2.4%) 단위는 등록률이 50% 미만이었다.

전국 148개 전문대학 중 46개 대학의 등록률이 90%에 미달했고, 3개 대학은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주호 의원은 "모집인원 감축 등 대학들의 구조조정 노력으로 등록률이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미충원 인원이 많다"며 "지속적인 정보공개 등을 통해 대학 특성화, 다양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바람 조심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다.

구분	지역	기온
광주	홍리고비	19~22℃
	홍리고비	20~22℃
	홍리고비	20~23℃
	홍리고비	19~23℃
	홍리고비	20~23℃
	홍리고비	19~23℃
	홍리고비	19~23℃
	홍리고비	19~22℃
	홍리고비	20~23℃
	홍리고비	20~23℃
전남	홍리고비	19~23℃
	홍리고비	19~22℃
	홍리고비	19~22℃
	홍리고비	19~23℃
	홍리고비	19~23℃
	홍리고비	19~23℃
	홍리고비	18~21℃

9월 5일

(음 7월 24일)
◇전국날씨

▲해돋이 06:07 ▲해질 18:55 ▲달돋이 14:52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6(목)	7(금)	8(토)	9(일)	10(월)	11(화)
날씨	☁	☁	☁	☁	☀	☀
최저/최고	22/26	22/28	21/29	20/28	20/29	19/28

광주·전남 전문대학 등록률

지역	대학	모집	등록	등록률	
광주	광주보건대	1,702	1,590	93.4	
	거북간호대	120	120	100	
	동강대	2,078	1,920	92.4	
	서강정보대	2,230	2,208	99.0	
	송원대	1,996	1,994	99.9	
	조선간호대	200	200	100	
	조선이공대	1,790	1,391	77.7	
	소 계	10,116	9,423	93.1	
	전남	남도대	980	837	85.4
		광양보건대	1,170	789	67.4
나주대		1,022	1,014	99.2	
동아인재대		1,218	1,165	95.6	
목포과학대		1,850	1,756	94.9	
성화대		1,236	1,205	97.5	
순천제일대		1,596	1,288	80.7	
순천정보대		1,300	1,263	97.2	
전남과학대		1,676	1,452	86.6	
현영대		810	771	95.2	
소 계	12,858	11,540	89.7		
계	22,974	20,963	91.2		

근육 강화 스테로이드 의사 처방없이 못산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몸장' 열풍 속에 운동선수나 연예인뿐 아니라 10대 청소년에게까지 광범위하게 남용되고 있는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제제'(anabolic steroid)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 의약품에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약품업 예외지역에서도 의사의 처방 없이 이들 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게 된다. 종전에는 의약품업 예외지역에서 성인기준 5일치 이하의 분량은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판매할 수 있었다.



조선대 총장 선거에 나선 6명의 입후보자들이 4일 정책발표회에 앞서 선의 경쟁을 다짐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인현·이용보·전호중·강동완·박대환·서재홍 교수.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조선대 총장 선거 첫 공약발표회 후보 6명 저마다 "내가 책임"

오는 13일로 예정된 제13대 조선대 총장 선거에 출마한 6명의 입후보자가 4일 첫 합동토론회를 갖고 정책대결을 펼쳤다.

후보자들은 이날 오후 대학 내 자 연과학관 4층 대강당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각자 준비한 공약을 발표하며 '내가 총장직으로 제1'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하지만 교수 661표, 교직원 51표, 총학생회 36표 등 총 748표에 달하는 투표권 수에도 불구하고 유권자 150

여명만이 참석해 이미 상당수 유권자가 표심을 정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추천에 따라 발표순서가 정해진 이날 토론회에서 강동완(53·치과대학 치의학과)교수는 조선대를 아시아문화 선도 거점대학으로 육성하고 재정 확충을 통해 구성원이 만족하는 감동 경영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전호중(53·의과대학 의학과) 교수는 투명한 경영 및 효율적 재정운영과 함께 교육과 연구를 모두 중시하

는 대학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신인현(53·사범대 과학교육학부) 교수는 교육과 연구의 수월성 제고, 창의적인 인재 양성, 지역과 세계의 중심대학 등 3대 경쟁비전을 제시했다.

박대환(52·외국어대 독일어과) 교수는 교수에게 창의, 학생에게는 신뢰를, 직원에게는 만족을 주는 대학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용보(60·사범대 과학교육학부) 교수는 교육이념을 정립하고 대학의 정체성을 확립해 경쟁력 중심 대학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재홍(58·의과대학 의학과) 교수는 시스템 개혁을 통한 열린 경영으로 2012년까지 조선대를 전국 10위권 대학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직원 학력검증 해 주오" 정부기관·은행 등 1천여명 신청 쇄도

정부기관·은행·사실학원 등의 학력검증 신청 건수가 4일까지 1천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4일 전국 200개 4년제 대학협의회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1~3일 학력검증 대행 신청을 받은 결과 정부기관과 은행, 사실학원 등에서 500여 명에 대한 학위 검증을 요청했다.

서울 소 시중은행은 임직원 200여 명에 대한 학력 검증을 의뢰했고 정부 중앙부처는 소속 공

무원 230여 명의 학위 검증을 신청했다. 지자체와 대학이 각각 10여 명, 민간기업·사실학원·민간단체 등에서 50여 명이 접수했다.

현재 정부기관과 민간기업, 은행, 대학, 자치단체, 사실학원 등 6개 기관이 소속 직원 등의 학력 검증을 신청했다. 홈페이지 회원에 가입한 기관은 30여 곳으로 정부기관과 민간기업, 교회, 대학, 학원, 공기업 등이 망라돼 있다.

'가을 장마'? 8월 게릴라 폭우 이어 열흘째 비 계속

장마 기간과 이후 평균 강수량 변화

연도	장마기간	장마이후
1973~1979년	314.9	242.7
2000~2005년	367.4	738.2

가을이 시작됐지만 여름철과 같은 많은 비가 내리면서 '가을 장마'(2차 장마)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가을 장마'에 국지적인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낭만적인 가을 비라는 개념도 변하고 있다.

'가을 장마'는 공식적인 기상용어는 아니지만 초가을인 8월 말부터 10월까지 계속되는 비를 뜻한다.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의 북태평양 기단(氣團)의 더운 공기가 만나 구름대를 형성해 비를 뿌리며, 집중호우나 태풍을 동반해 큰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다.

광주지방기상청이 1973년부터 2005년까지 여름 장마 전·후 강수량을 분석한 결과, 장마가 끝난 8월 이후 평균 강수량은 1970년대 242.7mm에서 2000년대 370.8mm로 35% 증가했다. 2000년대 이후 여름 장마철 평균 강수량 367.4mm보다 더 많은 비가 가을에 내린 것이다.

광주의 경우 지난 8월 하순 137mm의 비가 내려 평년(1971~2000년) 평균 강수량(112.7mm)보다 17.7% 증가했다. 9월 들어서도 4일 오후 5시 현재까지 총 90.2mm가 내리 9월 상순(1~10일) 평년값인 61.9mm를 훨씬 넘어섰다.

기상청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가을 장마'는 '여름 장마'처럼 해마다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강수량에도 큰 차이가 있다"며 "올해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제대로 세력확장을 하지 못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 장마 이후 많은 비가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5~6월 광주·전남지역에는 강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60~150mm의 비가 내리고, 지역마다 시간당 30mm가 넘는 폭우가 예상된다.

모디워갤러리 秋 특가판매

미술과 향취함으로 완성되는 엔틱의 명품

30% 할인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모디워갤러리 秋 특가판매

모디워갤러리 동주점사명 010-3352-3001-2 금호아트 빌딩 010-3352-3001

(주)제주무궁화관광

제주도 여행 2박 3일 89,000원

제주도 2박 3일 여행 패키지

- 89,000원
- 74,000원

064-744-1109 www.jejuwongwa.com